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9월 20일(금)

...(음력 8월22일)...

Пятница

20 сентября 2019г.

№ 37(11685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7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비가 시민들에게 큰 선물로 시공원 음악 분수쇼가 열렸다. 이 분수는 시행정부와 <스베르반크>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획이다. 지름 24m의 화려한 분수 양상블에는 다양한 구성을 이룰 수 있는 248개의 분수로 되어 있다. 이 음악분수는 12m 높이의 비석에 그림을 수 놓으며, 아치와 휘어지는 기둥, 움직이는 길 등 음악과 함께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저녁에는 LED조명이 추가되어 여러가지 색상으로 반짝이는 분수는 이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이 즐기는 휴식터가 되었다.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모스크바,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8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예정

오는 9월 21일(토) 모스크바 <살류트>호텔 회의장에서 사할린한인 강제동원 80주년에 즈음하여 <사할린 한인 역사80주년 기념 세미나 및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관련 문제>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러시아 지역 간 사회단체 '사할린 한인협회'의 주최·주관으로, 한국 재외동포재단과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수석연구원인 진 율리아 역사학 준박사(<사할린의 눈으로 보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박미숙 연구교수(<사할린 영주 귀국자의 생애담에 나타난 이주와 정주의 의미>), <디아스포라>연구소(한국) 소장이자 인천 고려문화원 원장인 박봉수 교육학 박사(<사할린 한인의 생애를 통한 자녀의 '귀환'에 대한 인식 탐색>),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부회장이며 사할린 <정의복권재단> 지도자인 김복곤 선생(<사할린 한인 문제 및 일본의 정책, 법적 책임 대신 유아무야>)이 발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23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행사에는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 전러시아 고려인 연합회, 모스크바 한인회, 민주 평통 자문회의, '러시아 고려인' 신문과 현지 한글신문,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 영사관,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회 대표 등이 참석 하게 된다. 그 외 역방문 중인 사할린 영주귀국자 일행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 지역 사할린 동포 및 고려인 동포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 구간 고속도로 2020년 5월 러시아 연방의 소유로 이전

지난18일(수)극동지역의 모든 주, 변경 도로관리국 대표들이 참가한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구간 고속도로가 2020년 5월부터 러시아 연방 소유로 이전된다고 발표했다. 극동지역 관리국 지도자들은 연방 교통부와 러시아 영토 고속도로 관리연합회 대표들과 함께 <안전하고 탄탄한 차도>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2024년까지 러시아 지역의 도로들을 표준 수준으로 만들고, 교통체증량을 줄이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교통 접근성은 섬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주정부는 도로 분야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세르게이 올론체프 주정부 부총재가 전했다. 핵심적인 문제를 중 하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 구간 도로를 연방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미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되어있으나 최종 이전은 2020년 5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쪽으로 가는 도로의 건설, 수리, 유지 및 보수가 앞으로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지급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남는 예산은 서해안 지역 도로망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인데, 네벨스크에서 샤흐초르스크 공항으로 통하는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미 아르센찌예브카에서 일리인스코예로 통하는 도로 구간에서 첫 작업이 시작되었다.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도와 교량, 건널목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새로운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연초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도로 건설을 위한 기금을 60% 늘리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지방 도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아스팔트 도로 비율을 러시아 연방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세웠다.

섬의 도로들의 길이 합계는 약 5000km로, 그중 약 3분의 1만 아스팔트 포장에 완료되어 있다. 국가 계획의 틀에서 5년간 지역 아스팔트 도로의 점유율을 55%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오늘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도로의 36%만이 표준에 적합한 상태이며, 2024년에는 이 수치를 86%까지 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러시아 연방 및 지역 예산에서 500억 루블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주, 주택 공공시설 대상 95% 겨울 대비

현재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택 공공시설 대상들이 겨울 대비 난방 가동 준비 95%가 완료되었다. 203개 보일러 시설 점검, 38개의 보일러 장비 설치, 2개의 증기 보일러 정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전동기, 연기 배출기, 증기난방기 등 243개의 보일러 장비 공급이 마무리되고 있다.

한파에 대비해 중앙난방시설, 하수도관, 수도국, 펌프장 시설도 완비됐고 또한 이전에 약 30km의 난방관, 30km이상의 상수도관, 10km의 하수관이 교체되었다.

모든 지방자치체와는 연료 공급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연료 공급 업체의 창고들에는 석탄 5만6천 톤과 액체연료 2000 톤이 준비돼 있다. 티몹스코예,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는 이미 충분한 양의 연료가 비축돼 있고 다른 지방자치체에는 10월 1일까지 연료 공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3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3회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주내 13개 지방 팀들이 참가해 며칠에 걸쳐 결전을 치렀다. 사할린주 스포츠부에서는 매년 이 대회 개최에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위스트크>체력단련 센터에서 진행되었고 경기 프로그램으로는 육상, 탁구, 다트, 농구 골대에 공 넣기와 25미터 수영 종목에서 경쟁했다.

이번 대회에서 1등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팀, 2등은 아니와 팀, 3등은 코르사코프 팀이 차지했다고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치과 이동병원차 5개 지방에서 진료

사할린 주 5개 구역에서 새로운 이동식 치과 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치과 이동병원차는 홈스크, 우글레고르스크,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호, 오히의 중앙구역 병원들에 맡겨졌다. 이동식 치과 진료소는 진료소와 먼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치과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총 10대의 치과 이동병원차를 구입했다. 이동식 치과 진료소는 '카마즈A3' 차량에 장비를 갖추었는데 치과 전문 의료장비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차량에 설치된 진료실은 치과 일반 진료실과 동일한 수준이다. 치과 진료기, 살균기, 현장 엑스레이 촬영과 모니터를 통한 영상그래프로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5개 치과 이동병원차 중 1대는 쿠릴지역으로 보낼 예정이다. 치과 진료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주 정부의 우선적 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9월 초에 진행되었다. 이에 세계 16개국의 해외 차세대 리더, 차세대 동포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사할린에서 이 대회에 사할린국립대 폴리테크닉 콜레쥬(공학기술 전문학교) 오 블라지미르 수학 교수가 참석했다.

해마다 열리는 차세대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 차세대 동포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블라디미르는 실력 있는 수학 교수일 뿐만 아니라 사할린주 한인협회 청년부 부회장도 맡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이 국제대회에 블라지미르는 처음 참석한 가운데 대회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였다.

"정말 행사가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을 잘 접대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를 비롯 여러 공식 인사들과 만남, 다양한 발제도 듣고, 교제도 하고, 한국 역사 특히 민주운동 등에 대해 좀 알게 되었고 역사 문화탐방도 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오 블라지미르 교수가 대회 참석 소감을 전했다.

블라지미르에 따르면 대회 참가자들의 나이는 20세대부터 45세 정도로 청소년들의 대회가 아니고 차세대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 러시아, CIS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비중이 꽤 컸다며 100여 명 중 30여 명 정도로 대회 행사

차세대 리더인 오 블라디미르 교수

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어, 영어, 러시아로 동시통역이 이뤄졌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대회에 사할린에서 많은 젊은 동포들이 갔으면 좋겠고 우리 주 한인협회 청년부 활동가들이 한 팀으로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체험이 될 거라 봅니다."라고 블라지미르가 말했다. 대회 신청 마감이를 전에 이런 기회를 알게 된 블라지미르는 사할린 동료들과 함께 가지 못 한 데 대해 좀 아쉬워했다.

곧 3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블라지미르는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사흐초르스크 출생이다. 학교는 우글레고르스크에서 다녔고 2002년에 사할린국립대학교 물리수학과에 입학했다. 전공은 수학 교사이다.

졸업 후 군대(하바롭스크 변경)에 복무를 하고 사할린으로 돌아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32호 중학교(노위알렉산드롭스크)에서 수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직장이 사는 집과 너무 멀고 출퇴근이 불편해서 다음해에는 제14호 중학교로 이직했다. 이 학교에서는 7학년생들에게 수학을, 5-11학년생들에게는 정보학(컴퓨터 과학)을 가르쳤다. 2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일 자리를 옮겼다.



"어느 날 우글레고르스크에 사시는 어머니가 전화하면서 '방금 티비를 보았는데 폴리테크닉 콜레쥬에 수학 교사가 필요한데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땐 제가 이미 결혼했거든요. 장모님과 함께 거의 1년을 사는 중이었죠. 그래서 이 전문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폴리테크닉 전문학교에서 일한 지 거의 9년이 지나고 있다. 사실 일반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크게는 다르지 않다. 1-2학년생들은 일반학교 10-11학년생들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1학년생들의 수학프로그램이 학교 10-11학년과 마찬가지로다. 다만 11학년을 졸업한 후 콜레쥬 2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에

게는 대학 수준의 고등 수학 일부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건설, 또는 컴퓨터 관련 등 직업을 선택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더 어른스럽다는 느낌된다고 한다.

만날 때마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그는 키가 크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안겨준다. 실제로 그렇다.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 한인협회 청년부가 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봉사활동에는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아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내년에는 청년부가 사할린에서 청소년 포럼을 추진할 계획인데 책임감이 강한 블라디미르도 역시 이를 조직하는데 많은 애를 쓸 모양이다.

그는 가정에도 충실해 아내와 두 딸들을 잘 챙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사 분담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많다. 첫째 딸(5살)과 둘째 딸(2살) 이랑 같이 놀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는 것은 필수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근하게 되어 여름방학이라서 블라디미르가 둘째를 돌보고 여러 요리도 나름대로 잘 해서 집에서는 도너츠 만들기 담당이 되었다고 한다. 도너츠 속 재료로 절인 양배추가 많길래 인터넷을 검색하고 야채

도너츠와 피자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사실 그는 모르는게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편이라며 몇 년 전에는 웬지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빠 따라 말팔도 스페인어 몇 마디를 외웠다며 문제는 이 언어로 얘기할 기회와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현재 블라지미르는 한국어도 배워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 차세대 대회를 다녀온 후부터는 이 생각이 더 확실해졌다고 한다. 사실 독학으로 한국어를 좀 배우긴 했는데 한때 어머니가 야간 조산어학습소에 다닐 때 썼던 공책을 발견하고 스스로 한글 알파벳을 익혔다고 했다. 한국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니 인사말 몇 마디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발음과 억양도 괜찮은 편이라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내는 성격이다.

작년부터는 씨름도 배우고 있다. 사할린의 여러 씨름대회에도 참가해 봤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 홀스크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3등을 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젊은 사할린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착하고 따듯한 성품과 진심을 다해 주어진 일과 가정에 충실한 그에게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인나 만코 교사, <러시아 올해의 교사> 경연대회의 결승 준비

티몹스코예 구역 제3학교 인나 만코 생물학 교사가 사할린주를 대표하여 <2019 러시아 교사의 해> 전국 경연 최종 결승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규모 교육 전문가 경연대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체첸 공화국 그로즈니시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러시아 교사의 해> 경연은 30회를 맞이한다. 경연에는 전국 지역 단계 경연의 우승자들 85명의 교육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9월 18일 인나 만코 교사는 러시아 우수교사 명성을 따기 위해 그로즈니 시로 떠났다. 4월에 <2019 사할린주 교사의 해>경연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하여 크리스탈 펠리칸을 거머쥔 인나 알렉산드로브나는 교사 경력만도 10년이 넘었다.

7월에 인나 만코는 전국 연방 단계 경연에 참석차 설정된 세미나에 참가했다. 여기서 경연 통신 단계로서 첫 경연 시험이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에세이를 쓰고 검사를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인터넷으로 제출했다.

경연의 직접 단계는 몇몇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교사는 전문가이다>는 두 개 경연 시험을 포함하고 있다. - '수업', '과외 행사'. 둘째 단계는 <교사는 장인이다> 여기서 교사들은 '활동교실'과 '교육 기획'에 참가한다. 셋째 단계는 <교사는 지도자다> 여기에서는 '공개 수업'과 '장관과 대화'가 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교육품질평가센터에서 전했다.

Сахалинка Инна Манько готовится к финалу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России"

Учитель биологии из школы №3 Тымовского Инна Манько представи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финал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России — 2019". Масштабный конкурс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ройдет в городе Грозном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 21 сентября по 2 октября.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Учитель года Росси" проходит в 30-й раз.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соберутся 85 педагогов, все они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ов конкурса. 18 сентября Инна Манько вылетает в Грозны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бороться за почетное звание лучшего учителя России.

В апреле Инна Манько стала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19" и обладателем хрустального пеликана. В профессии Ин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уже 10 лет.

В июле Инна Манько участвовала в установочном семинар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В это же время прошли первые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к заочному этапу конкурса. Педагоги написали эссе и сдали на проверку членам жюри свои интернет-ресурсы.

Оч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состоит из нескольких туров. Первый — "Учитель-профессионал" — включает два конкурсных испытания: "Урок" и "Внеуро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торой очный тур — "Учитель-мастер". Здесь педагоги выступают с "Мастер-классом"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оектом". Во время третьего тура "Учитель-лидер" педагогов ждет "Публичная лекция" и "Разговор с министро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주 과외 교육활동센터 사할린 주민들에게 소개

9월 21일 12시 주 과외 교육활동센터가 사업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이것이 우리다!> 활동을 진행한다. 행사의 목적은 창작의 대중화와 새로운 참여자들을 단체활동에 유치하는 데 있다. 행사에는 희망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는 예술단체의 공연, 전시회, 활동교실(마스터 클래스), 놀이 등이다. 주 과외 교육활동센터는 안무, 노래, 연극, 민요, 응용장식미술, 회화, 체스 동아리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예술단체와 재능있는 교육자들이 한 지붕 아래 모였다.

<이것이 우리다!> 활동으로 사할린 주민들은 연합활동을 알게 되고 자녀의 재능과 능력과 관심에 따라 하나 혹은 여러 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고 주 과외 교육활동센터가 전했다.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расскажет сахалинцам о себе

21 сентября в 12:00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о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ведет акцию "Это мы!".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 популяризация творчества и привлечение новых участников в объедин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е открыто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В программе:
-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 выставки;
- мастер-классы;
- игры.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собрал под своей крышей талантливых педагогов 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коллективы: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вокальные, театральные, фольклорные,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шахматный клуб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На акции "Это мы!"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еятельностью объединений и записаться в одно или несколько, исходя из интересов, таланта и способностей ребёнка,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크리스탈' 체육학교에서 학생 추가모집

<크리스탈>체육학교가 2019년-2020년 새로운 스포츠 학기를 맞아 학생 추가모집을 하고 있다.

<크리스탈>학교의 예비스포츠과에서 9월 30일까지 서류 접수가 이뤄진다. 그 다음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학생들은 개별 선발표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비 스포츠 그룹으로의 입적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다음 스포츠 종목의 장학생들을 모집한다.

스포츠 체조 (7세 이상) - 9월 20일까지 서류 접수. 권투(10세 이상) - 9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아이스하키 (2008년-2009년생) - 9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서류는 <크리스탈>체육학교 예비 스포츠과(주소: 고리키 거리 29번지, 2층)에서 접수한다. 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3:00 ~ 14:00,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문의전화 : 8(4242)240-166.

В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е "Кристалл"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набор детей

В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е "Кристалл"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набор детей на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сезон 2019/2020.

До 30 сентября в отделе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Кристалла" проходит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Затем с 16 сентября по 8 октября поступающим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отбор и сдачу контрольных нормативов. Зачисление в группы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ройдёт до 11 окт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8면에 계속)

아베정권과 사할린 한인의 현황



서울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호의 계속)

이것은 일본의 지도자가 최초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하여 사과한 것으로써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일본 국민으로부터도 높은 지지를 받아 일본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황과 고베 대지진, 오움 진리교 사건 등 일본사회를 엄청난 충격으로 빠뜨린 많은 사건들이 일본 국민들을 점차 보수적으로 만들어갔고, 근본적으로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지 못했던 무라야마 총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성을 실행하지 못했으니, 이런 방침을 무라야마 총리 이후의 모든 총리가 그대로 이어 받았다. 무라야마 총리의 뒤를 이은 하시모토, 오부치, 모리 및 고이즈미 총리는 모두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도 역시 2005년 8월 15일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침략 전쟁으로 큰 폐를 끼쳤다고 솔직하게 피해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또한 한일병합 100주년에 즈음하여 칸 나오토 전 총리는 '사할린 한국인에게 성실한 지원이행'을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은 전승국인 미국이 일본계 주민들에게 완벽한 보상을 실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주장에서 자국의 긍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자민당의 정책이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비인간적 태도를 일본 평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만 규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아베 정권은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개헌의 가장 관건이 되는 일본 헌법 제9조 1항에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구히 방기한다.', 2항에는 '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지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치 않는다.'라고 ‘평화헌법’의 골자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권을 잡은 우경화 정치가들은 일제시대의 침략이나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솔직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한국의 독도나 중국의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쇼도)에 대한 제국주

의적인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침략성을 나타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은 광복을 맞이 했지만 소련 정부는 노동인력 상실을 우려해 귀환시키지 않았고 억류되어 모진 세월을 견디낸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는 오직 한-소 국교 수립된 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1997년에 해결됐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 피해자들이 영주귀국길에 올라 지난 2000년,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된 경기 안산 고향마을에 약 1,000명 입주하기 시작했다. 그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약 4,000명 이상의 동포가 입국해 국내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귀환한 사할린 피해자들은 한국 국적취득과 함께 이곳의 사회체제에의 적응과 국내 정착생활에 술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영주귀국자 약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안산시 고향 마을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

아직도 여기에는 90세 이상 되는 고령자가 중병으로 고생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김포 통진읍 서암 주공아파트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 중 약 70% 만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가 가속되면 10년 후에는 60년 만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 생존자는 한국에 얼마나 남게 될까?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귀국했지만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속에 '사할린에서 온 이방인'으로 맞이하는 차가운 한국 주민들의 시선은 사할린의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냉랭하였고, 생활은 생각보다 평탄치 않았다. 2009년 정치권에서는 사할린 한인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과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사할린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으나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표류 중이다. 귀국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 이상 지나갔지만 영주귀국을 함께 못한 자녀들과의 생이별로 늘 그리워하면서 사할린 쪽 하늘만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소련-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공로, 원로 명예 교수 전학문 박사 현, (사) 국제문화공헌교류회 고문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가족사진 / 신기섭

그들은 모두 맨바닥에 누워 있었다
저마다 간격을 두었지만 서로의 핏물이
커튼처럼 그 간격 꼼꼼히 닫아주었다
무엇을 꼭 끌어안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여자의
발치엔 아기가 구토물 같이 옆질러져 있었다
아파트 베란다마다 얼굴을 가린 여자들의
짧은 비명 소리 같은 엄마!
(엄마, 언제부턴가 모든 엄마는 비명이었다)
깊이 파헤쳐진 무덤처럼 누워있는 여자
얼마나 귀가 찢어질 듯 한 짧은, 엄마인가?
혼자 떨쩍이 떨어져 누운 여자의 사내는
여전히 술 냄새를 풍겼으므로
그의 핏물은 거침없이 여자에게로 향했다
이제는 피로써 서로에게 스밀 수 있다는 걸
딱딱하게 굳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눈을 감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들도 이생에서
눈을 뜨고 가족사진을 박는다

"대한민국은 그간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달려왔습니다. 경제 성장, 민주화, 보편적 가치를 노래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이들을 끌어 안을 듯 세상은 밝다 밝기만 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끼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그 걸음걸이를 뒤따르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딱지처럼 굳어버린 피범벅, 피비린내가 코를 찌릅니다. 이제나마 눈을 뜬 채 가족사진 한 장 박는다니. 할 말을 잃었어요. 남몰래 흘렸을 이들의 비애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빌어먹을 야멸찬 세상이라니.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과 덕담을 주고 받는다는 추석! 저는 오히려 생의 갈림길에서 하나 둘 호흡을 세고 있을 이웃을 떠올립니다. 과연 이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눈망울을 지었을까요? 한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리며 이 '시詩'를 토해냈을 신기섭 시인은 어떤 분이였을까요? 먼도날처럼 예리한 시선, 그 뜨거운 눈물에 한없는 경의를!"



박승의 역사에세이 <‘박승의’, 나는 누구입니까?> - 사할린 강제징용 가족의 수난과 극복

사할린 국립대 전 한국어과 교수인 박승의 선생이 자신과 가족의 역사에세이 형식으로 집필한 글 <‘박승의’, 나는 누구입니까?>를 경기도 파주시 '구름바다' 출판사에서 책으로 2019년 9월에 출간했다.

책 소개

이 책은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징용 가족의 수난과 극복에 대한 박승의 선생의 역사에세이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했던 한인들의 비극적인 진실을 전달하고 역사에서 잊혔던 사할린 한인들을 오늘날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책 내용은 서문과 '들어가는 시- 만고풍상'에서 시작해 '일본 국적의 조선 아이', '가라후토로 팔려온 고모 이야기', '어린 시절 늦가을의 무서운 기억', '류준계 고향 답사', '텃밭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등 26장으로 나누어 어린 시절에서부터 현재 텃밭을 가꾸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역사를 잔잔히 서술하고 끝마무리는 '나오는 시- 조국의 가을'로 매듭을 짓는다.

책 서문 다음에는 들어가는 시 - '만고풍상(萬古風霜: 아주 오랜 세월 겪어 온 많은 고생)'이라는 시를 실었다.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슬픈 역사와 한을 담고 있는 이 시는 1995년 사할린 새고려신문 무궁화 문학 콩쿠르의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작자는 강순예(1922 - 2006년)이다. 아래 시의 일부는 사할린 한인들의 마음을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 눈으로 보았네
조국 청년 강제 모집 끌려와
탄광 산판에서 마소처럼 부려먹고
노임 제때 주지 않고 저금 강제 시켰고
고된 노동에 시달려
이팔청춘에 이 세상 떠난 것을
두 손 모아 하느님 앞에 비나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세월은 흘러 어언 50년이 되었건만
우리 조국 언제나 통일되려는지
우리 1세 살아생전 볼 수 있을까?
기다려 보세.'

1939년 박승의 선생의 부친이 강제징용으로 러시아 남부 사할린 가라후토로 끌려오자 가족도 뒤따라와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2년 박승의 선생이 출생했다. 일본국적의 조선 아이였다.

부친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삶을 살다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해방을 맞는다. 그리고 사할린은 소련의 통치 아래 놓이고 조선인들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조국으로 귀향을 서두른다.

패전한 일본인들만의 귀향이 이뤄지고 사할린 한인들은 사할린에서 오도가도 못 하는 신세로 남는다. '50년이 넘도록 무국적자로 억류되어 사할린의 노동력으로 쓰이며 살다가 그리운 고향 땅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다가 차가운 땅에 묻힌 1세 강제징용자들과 가족의 비극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작가는 묻는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Федерация ссиры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шла в соста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Чондж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стоялся IV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Chu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От сборной России туда отправилось восемь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и сахалинцы. Помимо соревновательной части, был подписан важный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спорта документ.



Начало осени в Южной Корее уже четвертый год кряду знаменуется открытием фестиваля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н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не только традиционные виды единоборств, такие как самбо, дзюдо и тхэквондо.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ят и в довольно экзотических дисциплинах, к примеру, верховой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Про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ую борьбу ссирым корейцы тоже не забывают.

— Я возглавлял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российскую сборную, — поясняет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Алексей Чун. — На фестивале мы выступили командой из восьмерых ребят: двое островитян и шестеро якут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К сожалению, сахалинцам медали взять не удалось. Якуты же взяли две бронзы, отличились Владислав Тимофеев и Евгений Алексеев.

Всего же на фестивале собралось семьдесят участников из пятнадцати стран. Сво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отправила даже далекая африканская Уганда. Эти пятнадцать стран и войдут в историю, как учредител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борьбы ссирым. Она получила название ISF (International ssireum federation).

— В Чонджу состоялось собрание, на котором стра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вмест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единоборств, так и образовалась федерация. Наше сахалин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также вошло в нее на правах полноправного члена федерации, — поделился радостной новостью Алексей Чун.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д обменов открывается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лозунг дл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ткрыт

Корейские автомобили, смартфоны, компьютеры, фильмы, корейская эстрада К-ПОП - все это уже очень хорошо знакомо жителям России. "Корейский элемент" стал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быта современных россиян. Многие из нас посетили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безвизовым режимом, который существенно упростило взаимные поездки друг к другу. Все чаще мы также видим и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езжающих в нашу стран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удут отмечать крупный юбилей -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которое обе стороны намерен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рядом крупных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ласти РФ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бираются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привлечь россиян и корейцев к выработке идей,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юбилей более запоминающимся. О том, что именно планируется, нам рассказал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Ли Сок Пэ, который, кстати, является русистом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и блестяще говори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Господин посол, чего нам стоит ожидать в связи с грядущим юбилеем, есть ли какие-то оригинальные идеи, которые смогли бы заинтересовать всех - как россиян, так и корейцев?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Ф Ли Сок Пэ: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возгласить 2020 г. Годом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тметить 30-летний юбилей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Кроме того,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нечно, для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важна подготовка со стороны официальных структур, правительств двух стран, но также крайне важен интерес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обычных людей,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Кореи.

Год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поможет корейцам и россиянам понимать друг друга.

Потому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е ведомства РФ и РК,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интереса обычных людей,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открытый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лозунг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Данный лозунг, который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льного во всех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ах в ходе празднований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Мы очень надеемся, что через эту акцию мы сможем получить оригинальные и интересные идеи,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изложить перспективу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еих стран - как России, так и Кореи. Срок окончания подачи своих вариантов лозунга - до 30 сент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Главному победителю будет вручен приз в виде авиабилета в оба конц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а также оплач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гостиниц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суток, а финалистам - подарочные дене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Мы очень надеемся на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со стороны как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то Вы ждете от этого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Посол Ли: Для стабильного, поступа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райне важно углублен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наших стран. Потому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Год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и поможет как раз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осведомленности, понимания корейцами и россиянами друг друга.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Москвой в 1990 г. наши связи прошли большой путь, постоянно развивались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и об-

ластях. Как вы знаете, в 2008 г. уровень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был повышен до отношени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обменов и других достигл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го уровня. Мы уверены, что следующий год, когда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30-летний юбилей дипотношений, станет тем самым событием,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прид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нновационный импульс для развития наших связей.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РФ и РК, мы осуществляем проработку и подготовку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ектов, мероприятий. Среди них важн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и реализуемый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и РК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лозунг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Что делается уже сейчас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юбилею и какой критерий, с Вашей точки зрения, станет самым важным в плане определения степени успеха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ол Л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труктуры правительств двух стран ведут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иуроченных к юбилею дипотношений. В Корею уже сформирован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юбилею, а также издан специальный указ со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сколько нам известно,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также ведет ак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к данному событию. В центре этой работы находя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РФ,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создан также Оргкомитет и издан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самыми важными акциями в ходе празднований стану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Точные время и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этих церемоний будут согласованы, когда будет решен вопрос об очередной личной встрече лидеров наших стран.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в Росс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наших стран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в котором было сказано о провозглашении 2020 г. Годом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России и Кореи. Этот документ стал своего рода фундаментом, на основе котор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и РК сотрудничают и готовят разного рода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уроченные к юбилею.

Мне также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лишь сферой культуры. В областях экономики, торговли, науки, технологий и других также готовятся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е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ного внимания уделяется и направлению молодежных обменов.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что крайне важную роль во всей эт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граю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дель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Кореи. На этом уровне, со стороны регионов двух стран также готовятся разноплановые 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уроченные к юбилею дипотнош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обытий в этой связи станет 3-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форум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й в 2020 году пройдет в городе Ульсан. Интересно и т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в 2021 г. в Корею культурный проект под названием "Русские Сезоны". Это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Россия считает нашу страну крайне важной страной, очень значимым партнером. Все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и существенно с учетом ожидающегося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Еще раз повторюсь, что с моей точки зрения самым главным и самым важ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всей этой работы станет повышение и углубление уровня осведомленност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потому, снова призываю как россиян, так и корейцев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откликнуться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на лучший лозунг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ун Чжэ Ин: Сеул сделает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поддержки диалога КНДР и США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возобновятся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КНДР и СШ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делает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сыграть свою роль в этом вопросе». Об эт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16 сентября на совещании со своими старш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Президент подчеркнул: «Наше будущее в новом порядке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н напомнил о двусторонних саммитах Юга и Севера, а также КНДР и США, назвав их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и событиями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По его словам, стремление всех сторон к миру и доверию станет той силой, которая будет двигать процесс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это общемировая задача, которая завершит последнюю в этом мире холодную войну. Мун Чжэ Ин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в ходе предстоящей встречи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в Нью-Йорке он намерен выразить поддержку диалогу Пхеньяна и Вашингтона, а также обменяться мнениями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РК и США на основе крепкого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юза.

США ввели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трёх хакерских групп КНДР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США внесло в санкционный список три хакерские группы из КНДР.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13 сентября документе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за иностранными активами минфина (OFAC). Санкции коснулись хакерских групп Lazarus Group, Bluenoroff и Andariel.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они проводили кибератаки для поддержки незаконных оружейных и ракетных программ КНДР. Lazarus Group в 2014 года провела кибератаку на Sony Pictures, а также заразила вирусами 300 тыс. компьютеров в 150 странах мира. Bluenoroff, по данным США, пыталась украсть 1 млрд 10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азличны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ах, в том числе 8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Центральном банке Бангладеш. Andariel подозревается в преступлениях проти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том числе в попытке выкрасть секретную во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Танзании выпустил памятные монеты, посвящённые островам Токто

В самый разгар спора РК и Японии по историческим и торговым вопросам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Танзании выпустил памятные монеты, на которых изображ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строва Токто с корейской версией названия «DOKDO», а также с надписью «территория РК» (THE LAND OF KOREA). Вес одной монеты с серебряным напылением 155,5 граммов. Ниже с высокой точностью выполнены восточный и западный острова. Эксперты указывают, что некоторые центральные банки мира выпускают монеты на самые разные темы в коммерческих целях. В 2005 году памятные монеты на тему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выпускались в Уганд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Банк Кореи никогда не делал этого. Высказываются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первой это может сделать Япония. Между тем, в 2004 году в КНДР было выпущено восемь монет, посвящённых островам Токто.

Дорога мира в ДМЗ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За первые четыре месяца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Дорогу мира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в уезде Конс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осетили 10 тыс. человек. Эта дорога протянулась на 2 км 700 м вдоль колючей проволоки у побережья. Там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еобычный пейзаж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и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что привлекло множество туристов. В этой связи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зон в этом районе. Так, начинается второй этап проекта Дороги мира вокруг панорамной площадки Кымгансан. В частности, там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ремонт различных объектов и помещений для комфорта туристов. Кроме того, доступ к Дороге мира станет полностью свободным. Сейчас её можно посещать только в определённое время. Получены средства в размере 6,8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создание навесного моста и тропинки от панорамной площадки Кымгансан до музея ДМЗ.

Поток японских туристов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Несмотря на охлажд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поток японских туристов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16 сентября доклад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в период с июня по август этого года в РК побывали 896 тыс. японцев. Это на 13,6%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месте с тем, темпы роста постепенно снижаются. Так, в июне отметка составляла 20%, в июле 19%, а в августе 4,8%. Общий поток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вырос на 15,3%, составив 4 млн 614 тыс. человек.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пришлась на граждан Китая – 1 млн 641 тыс.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японцы и тайваньцы. (RKI)

КНДР сообщила о выпуске собственного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смартфон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чала производство собственного смартфон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ильтонму", который, как утверждается, создан полностью в КНДР и обладает функциями распознавания лица, отпечатков пальцев и рядом других. О выходе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смартфона" сообщ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ортал "Ариран Меари".

Гаджет производится на заводе торговой компании КНДР "Кванъя". Название модели "Кильтонму" в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означает "Попутчик". Гаджет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 как "изысканный по дизайну", "инновационный" и "передовой". Голосом можно также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иск контактов. При покупке в смартфоне уже установлены около 30 "популярных при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слушать музыку, читать СМИ, установлены также электронные словари и другие программы.

Как утверждает "Ариран Меари", все составляющие гаджета - от внешнего дизайна до электронной "начинки" и самих программ - произведены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КНДР и силами тольк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месте с тем, англоязычное издание NK News, которое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новостях о КНДР, усомнилось в аутентичности "Кильтонму", указав на его подозрительную схожесть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мартфоном Samsung Note 8. Это видно по приведенным в



статье снимкам. Высказано осторожно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Кильтонму" может являться китайским "клоном" Samsung Note 8, на который затем поставили надпись "Сделано в КНДР".

В любом случа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опутчик", по словам "Ариран Меари", пользуется "огром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стране, о цене его ничего не сообщаетс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Материков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зличия и сходства

Ким Герман,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 32, 34, 36)
Безусловно, изолированный и компактный ареал проживания предопределил интенсивность внутриазиат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нежели соплеменники на Сахалине, утратили атрибуты традиционн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В обычаях и традиция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и Средней Азии под влиянием внешней среды, полиэтническог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окружения появились инновации, отличные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 же время отмечаются сходства в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ях, и одно из них заключалось в устойчивой приверженности к традиционной пище. Это сходство касалось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а в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е речь идет о строгом соблюдении похоронно-поминальной обрядности.

Однако, и в пище, и в ритуалах похорон отмечаются существенные различия. К примеру, в рационе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требление морепродуктов сократилось до минимум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на стол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ары моря занимают существенное место.

Другой пример, но уже из антропоник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зачастую имели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рейское и параллельное японское имя. Многие детей-корейцев, рожденных в начальный период жизни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также нарекали корейскими именами, однако позже многие взяли себе «придуманные» русские (европейские имена).

Что касается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то уже в 1940-е годы начался ускоренный переход на 3-х составную русскую антропонимическую модель, сокращенно именуемой ФИО, т.е.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Приводятся другие примеры различий в корейской семейной обрядности, например, в то время как островная субэтническая диаспора отмечала «бэк-иль» – 100 дней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 празднуют только годовщину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 «доль» (а сянджи). Корейцы в Казах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 отмечали обязательно «хвегаб» (хангаби) – 60-летний юбилей, но почти утратили празднование кохи – 70-летие юбиляра, что широко практиковалось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еще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примеров сходств и различий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сахалинских и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однако ограниченный объем статьи не позволяет провести детальное сравнитель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Этноязыков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 с начала переселения в Россию в последней трети 19 века до настоящих дней являются носителям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феномен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оре мар.

Коре мар – язык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мых старши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существовавший в устной

разговорной форме и использовавшийся лишь в семейно-бытовой сфере. Далекие предки переселенцев на рус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живающих нын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а также мигрировавших в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оисходили в основной своей массе из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Хамген (СХ).

Один из субдиалектов этой провинц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югып» (шесть уездов) составляет основу коре мар.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золяция от развивавшихся литературных языков Сеула и Пхеньяна, поглощение диалектизмов южных провинций, консервация архаики и наконец, влия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ривели к образованию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феномена, получившего название коре мар.

Социолингвисты констатируют завершение языковой ассимиляции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лностью перешедших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родной.

Корейцы, оказавшиеся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происходили в основной массе из южных провинций своей этнической родины. Жизнь в японской префектуре Карафутто и жесткая политика японизации стали причиной сокращ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и т.д.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сравненно лучше владело японским языком, нежели русским. После присоедин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к совет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ие дет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учиться в школах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е.

Однако в мае 1963 г.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в обычные общесоветские школы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обучения. Закрылось также 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чилища. Ликвидация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всемест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жизненно важн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ладения им, привели к ускоренной смене родного языка.

По данным переписи 1989 г., из 35 ты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воим родным языком считали св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только 12,9 тыс. человек, тогда как в 1970 г. - 28 тыс. Однако на самом деле, число владевших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как родным было намного меньше, чем число признававшим его таковым.

К моменту разв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тор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ак же как и материковских,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обрусело. Третье поколение утратило св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язык и стало безграмотной в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Разница заключается лишь в том, что 2-ое поколение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 это рожденны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о 1937 года и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а в случае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речь идет о рожденных на острове после 1945 год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города

В субботу, 14 сентября,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отметил свое 137-летие.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ждали ярмарка островных мастеров, фееричное открытие светомузыкального фонтана,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концерт хора Турецкого и Димы Билана, фейерверк и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развлечений.

Накануне праздника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о наш любимый город, а город — это люди. Спасибо ветеранам, которые строи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здавали его традиции. Спасибо молодежи, с кем нам вместе предстоит благоустраивать город, проектировать и строить дома, дороги, школы и больницы, проводить реновацию микрорайонов, ремонтировать фасады и дворы.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 нашем городе у людей было желание жить, работать, создавать семьи, заводить детей. Мы видим будущее с комфортны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жизни и счастливыми людьми. Хочу пожелать всем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счаст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всего самого светлого! С праздником, дорогие друзья!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Центром праздничных гуляний в субботу стал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имени Гагарина. Торжество охватило все площадки — берег озера Верхнего, Аллею сакуры, картодром, стеклянный шатер, сцену у аттракционов, танцплощадку. От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11:00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аккорды 137-ле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звучали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В 20:00 на сцену вышел хор Турецкого. А после — первый победитель «Евровидения» из России Дима Билан. Эффектной точкой праздника стал фейерверк.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крыли музыкальный фонтан

Объект обустроили у южного входа — на месте старого давно неработающего фонта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сооружения стало подарком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о Дню города.

— Современный фонтан благодаря перед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получил уник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едмет созерцания, но и просвещения, ведь это «умный» фонтан. И жители в этом могут убедиться, — отмет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бъекта.

Работая в разных режимах, фонтан создает различные водные эффекты. Для подсветки в вечернее и ночное время его снабдили разноцветными светодиодами. В качестве музыкального оформления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оизведения классиков, а также композици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зарубежной эстрады. Еще одна особенность сооружения — принцип солнечных часов. Роль стрелки выполняет главная струя воды. Территорию у объекта называли «Площадью времени».

С открытием музыкального фонтана горожан поздравил 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власти многое делаю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стровная столица становилась более удобным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местом для жизни. Мы формируем нов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реконструируем скверы, улицы, строим жилье. В целом создаем комфортную и современную городскую среду.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 этой работ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бизнес. Реконструкция фонтана — это проект Сбербанка, надежного партнера наше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Планы по обновлению южного входа в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зрели давно, а инициатива Сбербанк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фонтана ускорила этот процесс. Рабочи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аллею, ведущую к объекту, и облагородили сквер Святителя Иннокентия.

— Я очень люблю гулять в парке.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стараюсь бывать здесь каждые выходные. А теперь поводов посещать его стало еще больше. Фонтан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нигде такого не видела. Дочери просто в восторге,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Евгения Алексеева.

Напомним, строительству фонтана предшествовало голосование на сайте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выступили «за» реализацию необычного проекта. Построить комплекс помогла компания из Челябинска, которая запустила множество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по всей России.

Академия хоккея поможет развивать детско-юношеский спорт на Сахалине

Об этом 13 сентября договор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Академии хоккея Ак Барс» имени Ю.И. Моисеева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 Хоккей — один из самых любимых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идов спорта. У нас выстроена система отделений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возобновили выступления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в Молодежной хоккейной лиге. Делается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чтобы создать единую систему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ивного резерва, — подчеркнул Антон Зайцев.

Он добавил,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хватает методики,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ла бы тренировать сахалинских хоккеистов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Чтобы восполнить этот пробел,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мерен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Ак Барс».

Спортивный директор Академии хоккея Евгений Рычк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организация появилась три года назад. Сегодня в нее входят три ведущих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ы, тренируются 1300 воспитанников.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на базе «Ак Барс»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единая методика подготовки хоккеист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5 до 16 лет. С ее помощью тренеры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создавать резер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анд, а также заниматься по единым стандартам. Методика обеспечивае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хоккеистов без ущерба здоровью спортсменов.

— Мы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вас, поделиться наработанным опытом и взять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о подготовке тренеров, работающих с сахалински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 сказал Евгений Рычков. — Мы настроены на совместную долгосрочную работу, чтобы развивать детско-юношеский хоккей на Сахалине. Нам это тоже дает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На Сахалине множество способных хоккеистов, которые впоследствии могут стать игроками основной команды «Ак Барс».

14 сентя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кадемии хоккея побывали на первом домашнем матче «Сахалинских Акул» в МХЛ. На родном льду хоккеисты встретились с командой «Капитан» из Ступино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Игра прошла в ледовом комплексе «Арена Сити».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цев доставят в райцентр на медосмотр

Для этого на острове создали специальные мобильные бригады. Ими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жители сел в возрасте от 65 лет. Первыми испыт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новых автобусов жители Долинского 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ов. Их будут отправлять на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крининги.

Транспорт для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приобрели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Пока — два автомобиля. Они оснаще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подъемными устройствами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Мобильные бригады будут курсировать между населенными пунктами по определенному графику.

— Руководство области помогает островитянам сохранить здоровье и продлить годы активной жизни. Автобусы также задействуют в работе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х бригад. Специалисты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муницип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также будут выезжать по адресам проживания пенсионеров, чтобы на месте комплексно решать возникшие проблемы. Это новый подход в работе с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 сказала Елена Кобец,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учреждений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минсоцзащиты област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двух автобусов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или около 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еще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роме того, до конца 2019 года приобретут третью машину — для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Вс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организовать 15 мобильных бригад.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по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ернули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С первого апрел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работал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Его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культур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люди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е сахалинца» скидки до 10 процентов в магазинах и аптеках.

На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островитян в 2019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аправили около одного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Расширен круг получателей бесплатных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ых путевок. Теперь льготой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их вдовы, бывши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узники фашизма, неработающие пенсионеры с северным стажем от 40 лет, почетные доноры.

Ветерана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чали ежемесячно выплачивать 1,5 тысячи рублей. А с 1 июня пенсионеры, которые проработ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 35 до 40 лет,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ежеквартальную выплату — 3 тысячи рублей.

Коммунальные объек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товы к зиме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совещании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главам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бъекты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дготовлены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на 95 процентов. Проведены работы на 203 котельных, установлено 38 водогрейных котлов,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2 паровых котла. Завершается поставка 243 единиц коте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дымососов, электродвигателей, пароводонагревателей и других элементов.

Также к наступлению холодов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ы центральные тепловые пункты, объекты канализации, водонасосные станции, водозаборы. Ранее было заменено около 30 километров тепловых сетей, более 30 километров водопроводных сетей, почти 10 километров канализационных сетей.

—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объектов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Если есть отставание от графика,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должны провести выездные проверки. Всем районам необ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паспорта готовности к зиме,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совещания Алексей Белик.

Для ликвидации аварий в сфер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островах сформировано 120 аварий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бригад — 907 человек и 241 единица техники. Объекты ЖКХ обеспечены резерв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Договоры на поставку топлива заключены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На складах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находится 56 тысяч тонн угля и более 2 тысяч тонн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запас топлива уже сформирован в Тымов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ст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оставка топлива завершится к 1 октября.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оценить качество ЖКХ, транспорт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опрос открыт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ем 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жители все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нкетирование проходит аноним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Ссылка на опрос размещена в разделе «Власть»: <https://sakhalin.gov.ru/index.php?id=514>.

В списке — 12 вопросов. Сначала необходимо обозначить район проживания, а после — оценить работу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 качество электро-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услу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дорог, содержания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Если подходящего ответа нет в списке, в специальной графе можно написать свой вариант. Результаты анкетирования доступны всем желающим. К опросу уж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отни островитян.

Собра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направляют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экспертной комиссии. Данные помогают специалистам оцен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унитар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учреждений, работающих на муниципальных и областном уровнях.

В поликлинике Невельской ЦРБ пациентов обследуют при помощи нового рентген-комплекса

Цифр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установлено вместо старого аналогового, которое часто выходило из строя. Обновление медтехники в районе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реформы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торая стартовал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рентген-комплекса для Невель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направили 15,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Ежедневно на нём будут обследовать до 40 пациентов.

— Заболело колено, дали направление на рентген-обследование. Не заметил, как и прошёл. Всё быстро и удобно. Хорошо, что появляется новая, современная техника,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села Горнозаводск Дмитрий Кузнецов.

Прежний «плёночный» аппарат 2003-го года выпуска уже отработал свой ресурс и обладал меньш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н и вовсе н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На диагностику пациентов направляли в лечебный корпус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 Скорость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 цифровом аппарате гораздо выше, чем у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Не надо проявлять плёнку, лучевая нагрузка на пациента и на персонал меньше. Это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волит провес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любой области. Цифровой снимок попадает в единую базу данных.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ожно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з други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рентген-отделением Александр Бетешев.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месяца диагностическую базу эт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ЦРБ пополнит ещё одна новинка. Здесь установят современный маммограф. Уже есть планы и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 Решаем вопросы и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врачей. Ждём терапевтов. Также нам нужны невролог и лор. Работаем с кадровым агентством. К примеру, только сегодня рассмотрены два резюме от невролог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ажно, чтобы это был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 сообщи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Невельской ЦРБ Ксения Лапонова.

Отметим, главная цель реформы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увеличени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и активного долголет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박승의 역사에세이 <'박승의', 나는 누구입니까?> - 사할린 강제징용 가족의 수난과 극복

(3면의 계속)

1990년대에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고 비로소 사할린 한인 1세의 영주귀국이 이루어져 해방 이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강제징용자 1세대에 포함하여 영주귀국을 했다. 그때 박승의 선생도 대한민국 파주시로 영주 귀국을 하게 된다. 일생 동안 '박승의'란 이름은 조선인 박승의, 일본인 다카하라 가즈요시, 러시아인 보꾸 다카하라 유리 알렉산드로비치(Ю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대한민국인 '박승의'라는 이름으로 국적과 무국적을 반복하며 마침내 대한민국 땅에 아내 김소자와 함께 살고 있다. 책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76년을 살면서 6번이나 국적을 바꾸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일제강점기 시대 1942년에 사할린 땅에서 태어나 해방까지 3년은 일본 국민으로, 1945년 해방 후에는 무국적자로, 1958년에는 북한 공민으로, 1970년대에는 소련 국적자로, 1990년 소련 붕괴 후에는 러시아 연방 국민으로, 2010년 영주 귀국하여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삶을 이어간다. 사할린 강제징용 가족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일본 아이들과 놀면서 일본말과 일제 사상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했고, 1948년 조선학교 1

학년에 입학하면서 소련 공산주의 사상을 획득했으며, 2009년부터 대한민국 자본주의 현실을 받아들이야 했다. 제도가 바뀌면서 이름도 변해야 했다. 다카하라 가즈요시에서 박승의로, 박승의에서 박 유라(Юра)로, 다시 박승의로 변하는 동안 의사소통도 일본어, 러시아어, 한국어 세 개의 언어로 변하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란 질문에 대답할 때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혼란스럽다. 그러나 타국에 살면서 우리 민족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특성'이라 할까?...'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킬 만한 조건 속에서도 사할린 한인들은 타지, 타 문화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한국어와 문화와 교육으로 지켜 왔다고 그는 말한다. 현재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박승의 선생은 사할린 강제징용의 역사와 강제징용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글로 쓰며 널리 알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징용 가족의 수난과 극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박혜신)

저자 소개
박승의 (1942 ~)
1942년 사할린 남부 가라후토 출생
전 사할린대학교 경제 및 동양학



박승의
나는 누구입니까?

사할린
강제징용 가족의
수난과 극복

박승의 지음

대학 교수
전 사할린 주 한인 협회 이사
전 사할린 주 한국어 교원협회 회장
고 박노학 회장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장
현 사할린 주 한인역사 연구원
현 파주시 사할린 영주귀국자 협회 회장
현 디아스포라 문화원 원장

[우리말로 깨닫다] 사람을 만나며 살다

세상을 산다는 말은 사람을 만난다는 말과 같은 말로 보입니다. '살다'와 '사람'은 같은 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까지 같은 어원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다는 의미의 한자어 '사랑(思量)'에서 온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말 '사랑'은 생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랑과 사랑을 같은 어원으로 봅니다. 아마 사랑을 하며 사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더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사람이고, 살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왕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며 사는 삶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혼자 살 수 없기에 서로 만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살면서 좋은 만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나와 맞는 사람과 한평생을 사는 일을 바랍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남은 귀합니다. 인간(人間)이라는 말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뜻으로 혼자서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도 만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만남이 없다면 사람의 사이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이는 변합니다.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한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꼭 붙어 지내다가도 벽이 생겨서 서로를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믿음에 배신을 당해 괴로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확률 게임 같기도 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률이기에 예측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살면서 어울리는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관계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한 번 맺어진 관계가 평생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긋나기도 하고 아쉬움에 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을 또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또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지나온 경험에 의하면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기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악연이 될 확률은 오히려 낮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악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아마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성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밖에도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난 지 오래 되지 않은 분입니다. 새로운 인연인 셈입니다. 전에는 새로운 인연이 두려웠고, 어릴 때의 인연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고 나서 정말 귀한 인연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 만났던 인연이 줄어들고 있음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을 만난다는 말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세상이 낯설기도 하지만 즐겁고 기쁘기도 합니다. 때론 서로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많다면 슬픔도 고통도 치유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위로가 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사할린주, 8개월간 수상한 약품 한 8000곽 몰수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앞두고 러시아 연방 보건감독청 사할린주 관리국은 2018년과 2019년의 8개월 간의 사업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 기관의 홍보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리국 전문가들은 유통 중인 약 8000곽 가량의 의심스런 약효성 약품을 몰수했다.

압수된 약품들은 모두 30여종의 불량 약품들이었다. 또한 보건감독청 전문가들은 의료 명목의 7만 8000 의료 기기의 판매를 근절시켰다. 몰수된 제품들은 사용자인 환자

들의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실제 전체적으로 유통기한과 관련된 위반과 제조사에 필수 정보가 부재하다는 설도 있다.

2018년에 보건감독청 관리국 총결에 따라 주내 주민들로부터 262건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접수된 불만 사항들 중 72%가 사할린 주의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된 것이었다.

Условия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ий лозунг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1. **Наименование конкурса:**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лозунг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2.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С 10 сентября (Вт) по 30 сентября (Пн) 2019 г.;

3. **Результаты конкурса:**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будут уведомлены о результатах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14 октября 2019 г.

-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пройде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в октябре 2019 г.

(Точная дата и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церемонии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позже)

- Победивший вариант украсит буклеты и официальные рекламные материалы сопутствующ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4.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К участию допускаются гражда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живающие в стра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х гражданству.

5. **Оценка работы:**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определяются совместным решен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6. **Критерии оценки:**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универсальность применения и другие.

7. **Подача заявк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и должны быть озаглавлены "Slogan Contest_ (ФИО участника)". Направлять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madzhamalidinova@mid.ru). Один участник может подать до двух заявок.

- Лозунг и заявка должны быть составлены либо на корейском, либ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 **Награда**

-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получает билет эконо-класса на перелет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нчхон)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Москва) туда и обратно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размещения на три дня.

- 3 участника-финалиста получают подарочные карты (купоны) на сумму эквивалентную около 200 000 корейским вонам.

9. **Контакты:**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обращаться по электронному адресу madzhamalidinova@mid.ru.

10. **Примечание**

- Все авторские права на победивший лозунг, в том числе права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осуществление и защиту неимущественных авторских прав, уступаются Комите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празднования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2020 г.;

- В случае отсутствия оптимального варианта среди заявок, предложенных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результат конкурса может быть не определен. В ходе выбора лозунга, работы, предложенные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могут быть изменены или дополнены.

- В случае, если победивший лозунг по случайному стечению обстоятельств был подан двумя или большим числом участников, победитель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 по очередности подачи заявок.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Ф

"사할린 한인"전시회 개최



지난 14일(토) 17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에 한인>전시회가 열렸다.

개막식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초등학생들의 귀여운 무용으로 시작됐다.

이날 축사와 인사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주 향토박물관 유리 알린 관장이 전했다. 박순옥 회장은 이와 같은 전시회에 대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에게 요청한 바 있었는데 한 달 지나 전시를 열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유리 알린 관장은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가 사할린 역사의 일부분이라며 공간이 부족해서 큰 전시를 펼치 못한 것에 좀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상설 전시를 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전시회 개최에 협조한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 <에트노스>학교 등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할린에 거주하던 한인들에 대한 언급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에는 사할린 한인의 디아스포라 형성의 복잡한 역사적 과정들이 일어났다.

현재 사할린 한인들은 사할린 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 분야 등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토박물관, 주한인협회, 새고려신문사, 우리방송국 등의 전시된 소장물들은 사할린 한인의 역사, 생활양식, 전통, 관습 및 사회 활동의 역사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품들이다.

이날 전시회의 첫 관람객들은 주향토박물관 수석연구원 진 율리아 역사학 준박사의 첫 관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관람을 한 후 방문객들은 다도와 민속놀이 체험 등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한식 다도 역사에 대해서는 진 율리아 연구원이 이야기했으며 투호, 제기차기, 태극기 그리기 등 활동을 <한국어 예비교원 실습>프로그램으로 온 경희대 사업단의 교사와 학생들이 맡았다. 관객들은 차도 마시고 떡도 먹으며 한민족 민속놀이도 마음껏 즐겼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 관람객들 중 동포도 많았지만 러시아인, 일본인도 꽤 많았다.

전시회는 10월 15일까지 열리며 전시 관람 예약과 추가 정보는 전화번호 : 72-75-55, 72-46-63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Набор проводится в группы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по следующим спорти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портивная гимнастика (с 7 лет) —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до 20 сентября;

бокс (с 10 лет) —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до 30 сентября;

хоккей с шайбой (2008-2009 г. р.) —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до 30 сентября.

Документы принимают в отделе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Ш "Кристалл" по адресу: ул. Горького, 29 (второй этаж)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с 09:00 до 18:00, обед с 13:00 до 14:00, выходной (суббота — воскресенье).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240-166, сообщает "Кристалл".

사할린의 고용주들 신입 사원들에게 무료 스포츠 이용권으로 손짓

<헤드헌터> 채용 분석 서비스는 극동지역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근무 환경을 조사했다. 커피머신과 친근한 사내 분위기로 전문가를 유치하기는 실제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이리저리한 공백에 지망자를 위한 묘책으로 추가 보너스를 생각해 내고 있다. 극동 연방구에서 취업 지망자에게 내미는 모든 제안의 1/3인 35%가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수 기회를 염두에 두고 있고 2%는 고용주의 보너스를 포함하고 있다. 사할린주 경우는 제안 중에 스포츠 활동 이용이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자 그룹의 지도자들에게는 법인으로 유명 휘트니스 클럽의 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건축설비 기술자들 경우엔 무료 페인트볼 경기 이용권을 제공한다. 비교하자면 하바롭스크의 기획 경영자들에게는 수영장 무료 이용권, 포커, 테이블 축구게임을 제공한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영화관 대표인들에게는 무료 영화 관람권을 제공하고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카에서는 신입 사원들에게 열광적인 파티를 열어주고, 블라고베센스크 회사들의 수영 강습은 경영인들을 결속시키고 있다.

Работодатели Сахалина приманивают но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бесплатным спортом

Аналитики рекрутингового сервиса HeadHunter исследовали условия труда,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ют своим сотрудникам работода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влечь специалиста кофемашиной и друж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сегодня практически нереально, поэтому многие компании изобрет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онусы для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ту или иную вакансию.

Примерно треть — около 35 процентов — всех предложений о работе в ДФО подразуме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читься на курсах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2 процента объявлений содержат обещания подарков от работодателя.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о в ход идет доступ к спортивным занятиям.

Лидеру группы агентов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дадут карту известного фитнес-клуба с корпоративным тарифом. А мастер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сможет бесплатно выехать на пейнтбольный матч.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Хабаровске менеджерам проектов предлагают бесплатные походы в бассейн, настольный футбол и поке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ассирам кинотеатров дают бесплатные билеты на сеансы.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но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заманивают зажигательными вечеринками, а менеджерам в компаниях Благовещенска могут «срассить» занятия по плаванию.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Заказывай еду онлайн



eda.sakh.com

реклама



ООО "Сах.ком", ОГРН 1046500642264,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